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부처님이란 단어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교에는 경전이 많이 있는데 이 경전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A** 부처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세에 부처님을 과거불(過去佛)이라고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석가모니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모두 7분의 부처님들이 계셨다고 해서 과거칠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7분은 비바시불(毘婆尸佛), 시기불(尸棄佛), 비사부불(毘舍浮佛), 구류손불(拘留孫佛),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가섭불(迦葉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석가모니불은 인류

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Q** 번뇌란 무엇인가요? 불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꼭 머리를 깎아야 행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번뇌란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견해와 습기를 말합니다. 나쁜 마음의 작용이지요. 다시 말해 고민 걱정이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거나 상하게 하는 작용입니다.

근원적인 번뇌에는 삼독이 있는데 탐(貪), 진(瞋), 치(癡)라는 세 가지의 마음의 독을 말합니다. 즉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부처님은 제법

#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해요

## 행복법당 탐방 초록별장난감도서관

“우리 아이가 3살인데 영유아 특성상 장난감에 대한 실증이 잦고, 평소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생겨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너무 기뻐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등)은 9월 구미지역 최초로 지역 내 영유아를 위한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을 열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0~7세 영·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2만원을 내면 품목당 500~3000원에 6박7일 동안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김미영(38·구미시)씨는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없고 아이도 아주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을 연 지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다. 하루 평균 대여건수는 20~30건인데 주말이 되면 배로 늘어난다.

이보희 사회복지사는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200명으로 제한된다. 별첨 회원등록은 꼭 함으로써 대기자수도 30여 명이 넘었다”며 “주변 지역에 장난감 도서관이 이곳 한곳뿐이라 김천, 군위 등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에서 손자를 데리고 온 권영순(63)씨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직접 들고 찾아왔다. 17개월 된 손자가 집에만 있으면 많이 답답해하는데 여기서 노는 걸 매우 좋아한다”며 “이런 시설이 얼른 군위군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난감의 소독관리는 철저하다. 자원봉사 인력이 상주해 방납된 장난감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독작업을 한다.

“초록별 장난감도서관”은 일반가정은 물론 구미지역 관공서, 구민회, 각 상회



권영순씨는 구미지역에 최초로 ‘장난감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군위군에서 손자와 함께 방문했다.

층, 다문화·북한이주민·장애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에는 별도의 놀이공간이 있어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가능한 놀이 방법의 습득 △영양교육 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양교육 만들기 △놀이감제작 콘서트-자녀를 위한 놀이감 만들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아동들의 나이와 성장 과정을 고려해 장난감을 마련했다. 목욕을 보던 인지학습놀이영역, 신체놀이영역, 퍼즐블럭놀이영역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최은경 사회복지사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장난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또한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심리·정서적 발달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놀이를 통해 부모, 자녀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오종합복지관은 1999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11년째 운영 중이다.

도리사를 운영지원사찰로 하는 복지관은 관장 범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도리사 주지)과 김현연 부관장,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자비·희망·참여’의 사명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 금오복지관 구미지역 최초 장난감도서관 오픈

### ‘자비·희망·참여’ 사명... 가족상담 기능 강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행복한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행복한 지역사회(Happy Family Happy Community)’를 슬로건으로 삼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복지관은 △가족복지서비스(다문화센터,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아동가족상담센터, 이혼가족지원센터) △교육문화서비스(평생교육센터, 어르신예술봉사단, 독거남성노인 청춘요리사) △지역사회보호서비스(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동목욕센터, 이동세탁센터) △지역사회조직서비스(구미다문화공동체방송) △자활지원서비스(노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을 제공해 복지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현연 부관장은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 구미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많다. 복지관은 금오다문화지원센터와 아동가족상담센터, 이혼가족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관은 아동복지시설인 경북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학대아동그림움, 구미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공동체에서의 보호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돕고 있다. 김현연 부관장은 “현재 구미지역은 북한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올해 복지관은 북한이주민의 원만한 한국생활 정착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북한이주민 사회회귀준비반’을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연 부관장은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시행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도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의 종합복지센터,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거점센터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054)458-0230

이냐는 기자

## 부처님이란 단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쓰였나요? 과거 칠불 이르나 역사상 실제인물은 석가모니 뿐

역사가 이 땅에 실제 계셨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교의 경전들은 모두가 석가모니불에 의해 직접 설해졌거나 또는 설해지는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제외한 여섯 부처님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으며, 다시 말하자면 전설적인 부처님들입니다.

경전에는 이외에도 석가모니불에게 장차 부처님이 되리라고 수기(授記)한 것으로 유명한 연등불(燃燈佛)을 위시하여 24분의 과거세 부처님을 드는 경우도 있고 53분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부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범어로 ‘수트라’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설한 교법과 그것을 기록한 불교 성전을 말합니다.

경전은 석가모니불의 말씀을 부처님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편찬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항상 부처님 곁에서 설법을 들으며 기억하고 있다가 경전을 편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내담자께서 경전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략한 제자가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인 만큼 경전을 쓰신 분은 부처님

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현상에 탐착함으로써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행은 무상해 모든 것은 변해 가는 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며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려 애를 씁니다. 부처님은 제법의 실상을 알고 탐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번뇌가 끝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번뇌망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니다.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108번뇌라고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번뇌로 인해 여러 가지 악업이 발생되므로 그로 인해 얻혀지는 업장을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하여 번뇌 아닌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행의 목적은 사성제중에서 멸성제이니 탐진치의 소멸, 갈애의 소멸 등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만의 예절과 의례가 있습니다.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와 절 생활을 익히는 행자 생활에서부터 스님이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님이 되는 의례로 삭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버리라는 의식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당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쇼소발호역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http://www.ki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미얀마성지순례

## 황금의 불국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풍요한 미얀마!

생활속에 살아있는 불교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미얀마로 불자여러분들, 미얀마 현지에서 수행사신 대적원 각목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성지순례로써 하오니 수회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곤의 까바에 파고다에서 거행되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식은 불자님께 큰 환희심을 드리게 될것입니다.

제 1일 10:30 부산출발 / 하노이 도착, 시내관광  
제 2일 번통지대 평안 문화 탐방후 하노이 출발/양곤도착  
제 3일 세계문화유산 바간지역 성지순례  
제 4일 부처님 재세시 왕림하신 만달레이  
제 5일 인레의 해호 호수 수상속 생활상 관광  
제 6일 양곤시내 파고다 순례 및 마하시 선원 참배  
제 7일 미얀마의 상징 웨다곤 황금대탑 순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대법회 후 사이공 경유  
제 8일 06:50분 김해공항 도착 해산

▶ 일정 : 2010년 12월 7일 ~ 12월 14일 (8일)  
▶ 1인당 동참경비 : 1,980,000(예상가격)

세계 근본불교 수행도량 대적원  
주 관 : (주)진선관광여행사  
☎ 051) 853 - 7854  
☎ 051) 465 - 3333